

“목회는 ‘바울의 영성과 목회 철학’ 으로 해야”

디모데목회훈련원 이용걸 목사
목회자 세미나 개최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 목회자 세미나 기념촬영 ©기독일보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이 나성한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이용걸 목사(영생장로교회 원로)를 강사로 지난 20일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했다.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을 주제로 강의한 이용걸 목사는 35년간의 목회경험을 바탕으로 목회 현장과 삶에서 배운 목회 지혜를 아낌없이 나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에 대한 실질적인 멘토링이었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KAPC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서가주노회, 동가주노회, 북미주 서노회에서 후원한 이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는 사도행전 20장 17-38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영성과 목회를 설명했다.

이용걸 목사는 “바울의 영성을 닮고자 노력했고, 바울이 한 대로 목회를 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교회가 성장했다. 여러분들도 바울을 본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 목사는 “목사는 항상 겸손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좋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 받아야 한다”며 “목회에는 지름길이 없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기도와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거리낌없이 목회해야 한다”며 “받는데 익숙한 목회자가 되기 보다는 범사에 모범을 보이고, 교인 수를 늘리기 보다는 바른 교리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 목사는 목회자가 이성 문제와 돈, 명예

에 무너지는 것을 주의하면서 “여자 성도하고는 악수하는 것도 자제하려고 했다. 상담을 해야 한다면 문을 열어 놓고 하라. 돈을 돌 같이 여기며 함부로 헌금을 받지 말라. 박사 학위를 받으려 하기 보다 자기 생명을 내어 놓고 사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용걸 목사는 은퇴 후 2017년 디모데 목회훈련원을 설립했으며, 전 세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후배 목회자 교육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미주한인교회 목회자 500여 명, 전 세계 12개 이상 국가의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 선교사들을 훈련하며 지원했다.

디모데목회훈련원은 교회성장을 위한 복음주의적 신학과 현장목회 노하우를 재교육 및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이 성경적인 영적 지도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전도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회와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 가족들의 교육비와 생활비 등 재정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美 비기독교인들, 18%만이 “복음주의자에 긍정적”

미국인들은 무신론자, 무슬림, 몰몬교인보다 유대인, 주류 개신교인, 가톨릭 신자를 더 호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최근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나 복음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2022년 9월 실시된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여러 종교단체에 중립적이었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비복음주의 미국인에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을 ‘거듭난 개신교인’ 또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이라고 밝히지 않은 사람들 중 32%가 “복음주의자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한 반면, 18%만이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감정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미국 정치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

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거나 복음주의자들인 민주당원들이 복음주의자가 아닌 공화당원보다 복음주의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각각 47% 대 14%로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결과가 부분적으로 질문을 받은 그룹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더불어, 결과에 대한 일부 맥락을 제공했다. 가톨릭과 복음주의와 같은 가장 큰 그룹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그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자들은 또 미국인의 35%가 매우 또는 다소 호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반면, 6%는 호의적이지 않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역학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대인은 미국 인구의 약 2%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자신의 견해를 제외해도 유대인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주요 개신교와 가톨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전체 미국인의 약 4분의 1은 몰몬교에 대해 매우 또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15%만이 몰몬교에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침례교 목사이자 이스턴일리노이대학의 정치학 조교수인 라이언 버지(Ryan Burge)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복음주의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이 복음주의자들과 공화당 사이의 긴밀한 연결 고리라고 생각한다”며 “응답자가 공화당원이라면 그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동맹으로 본다. 그

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을 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복음주의자를 보는 방식과 유대인을 보는 방식은 대조된다.

그는 “이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조합일 것이다.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에 아직도 남아 있는 죄책감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것을 내면화했고, 그 결과 유대인에 대해 더 따뜻한 감정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아마도 약간의 사회적 올바름의 편향일 것이다.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표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무슬림이나 무신론자, 복음주의자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거의 없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봄맞이 SALE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48개월까지 0%이자가능
0%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HYUNDAI Getaway Sales Event
NEW 2023 HYUNDAI IONIQ 5 SE
NEW 2023 HYUNDAI TUCSON SE
NEW 2023 HYUNDAI SANTA FE SE
NEW 2023 HYUNDAI SANTA CRUZ S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213.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전도... '한 영혼 위해 죽으리' 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이영희 전도사, 디모데목회훈련원 간증 집회에서 '보배 전도법' 소개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이영희 전도사를 강사로 전도 간증집회를 개최했다.

이영희 전도사(한울교회 전도사)는 국내에서 8천명 이상을 전도한 전도사로, 전국을 다니며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전도다”라는 주제로 간증 집회를 인도한 이영희 전도사는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보배전도법’을 소개했다.

이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영혼을 위

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며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한 영혼 뒤에는 천 명이 있다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전도사는 시간이나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전도한다. 가족 같은 교인이 한 주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거리에 관계없이 심방을 간다. 요양원, 재활병원, 독거노인을 찾아 다니며 전도에 열심을 낸다. 또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정착할 때까지 최고로 섬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영혼을 전도하면 가장 먼저 주일 성수와 심일조 생활을 가르친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 이웃을 향한 섬김을 가르친다.

이 전도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선교와 전도가 살아야 하고, 사람들과 불화하지 않



전도간증집회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영희 전도사 ©기독교일보

아야 한다”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항상 기대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역하며 인내로 사역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

김동욱 기자

“한미동맹 70주년...미주 한인 힘 모아 지지할 것”

한미동맹복원협회 창립총회 가져

한미동맹복원협회(총회장 신영구)가 지난 18일, LA 코리아타운 소재 용수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미주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 설 것을 밝혔다.

한미동맹복원협회는 한미동맹 강화의 초석이 되기 위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증진,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구축, 공동 기술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동영상을 시청하며 한미동맹 체결에 앞장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으로 당사국 중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



한미동맹복원협회 창립총회 참석자들이 힘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기독교일보

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언제든지 서로 협의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 현재는 안보동맹을 넘어서 미래·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영구 총회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복원협회를 창립했다”며 “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힘을 모아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한미동맹은 한반도 근대화와 경제 번영의 초석이 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과 자주외교 정책 수립에도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품고 있는 북한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차세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명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창립총회는 박헌성 목사(나성열린문교회)가 개회기도를 했으며 신영구 총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오진형 총재대행이 환영사를 전했다. 창립 축하를 위해 진교류 백악관 전 차관보, 유상용 한미동맹협의회 한국본부 대표회장, 이승우 LA 평통회장을 축사를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임용근 전 오레곤주 상원의원,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이 축사를 보내 창립을 축하했다.

김동욱 기자

류당열 목사, 튀르키예 지진 선교 봉사자로 파송

류당열 목사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미 서부지회,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미 남가주지회의 후원으로 오는 4월11일부터 19일까지 튀르키예 지진 지역 선교 봉사자로 파송된다.

류 목사는 현지에서 후원금,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지진 피해 지역을 돌면서 선교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류당열 목사는 “지난 1997년 튀르키예

지진이 발생했을 때, 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 반주자의 찬송가 연주 가운데 ‘배 타고 떠나라’는 구절을 듣고 순종해 의료봉사를 나선 적이 있다”며 “이번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 지진으로 고통 받는 그들을 다시 한번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의료봉사 팀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웨스트 할리우드에 소재 베벌리힐스 제일침례교회에서 진행된 파송예배에는 김용희 목사(Good TV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영완 LA 총영사와 LA 새사람 영성 훈련원 원장 서사라 목사가 각각 축사와 권면을 전했다.

또 월남 파병 동우회 미서부 지회 회장 양근수 회장, 전 백석 대학 교수 방동



류당열 목사

섭 목사,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회장 추영수 목사, LA 평통 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장 정요한 목사,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정완기 목사가 이어서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성권상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김민선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가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왕국화 되면 안돼... ‘한 영혼’ 으로 돌아가야”

제6회 머슴교회 세미나, 교회 본질과 가치 재고

국제만사인이 주관한 제6회 머슴교회 ‘만 나며 사랑하며’ 세미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남가주 애너하임에 소재한 순전한교회(담임 이진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영선 목사(빌립보교회 원로)와 김성모 목사(국제만사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메릴랜드 주 빌립보교회의 비전과 사명, 추구하는 가치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조를 소개하며 교회의 본질 추구하고 건강한 교회를 향한 방향을 제시했다.

송영선 목사는 머슴교회의 가치관을 비롯해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며 교회 성장이 아닌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제자 훈련, 평신도 동역자를 양육과 재생산을 통해 목양자로 세우는 과정 등을 소개했다.

또 오직 예수, 머슴의 도, 한 영혼의 귀중함, 목양 우선, 과정 중심, 평신도 사역, 두 날개의 교회,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안팎이 똑 같게, 그럴 수도 있지 등 머슴교회의 열 가지 가치관을 설명하며, 머슴교회가 그동안 준비해온 여러 자료들과 더불어 목양 과정과 평



제6회 머슴교회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메릴랜드 빌립보교회 송영선 원로 목사 ©기독일보

신도 사역을 가감 없이 나눴다.

송영선 목사는 “교회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높아져야 한다, 많아져야 한다, 유명해져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낮은 자를 섬기며, 예수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이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면 모든 성도들을 든든한 동역자로 또한 목양자로 일시켜 세울 수 있다”며 “목양은 목회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덧붙였다.

김성모 목사는 “먼저는 진정한 교회 가치를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며 “성도들이 예수님과 교회를 발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 및 재생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또 “성도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신 은혜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머슴으로 영성, 전문성, 리더십을 함양하며 머슴의 삶과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송영선 목사는 한국에서 대학시절 조이선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탈북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나성영락교회 대학부 담당자로 사역했으며 1993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빌립보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다 5년 전 은퇴했다. 미주 코스타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제 만사인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이동원 목사 “세상으로 축복 흘려 보내는 그리스도인 돼야”

동부사랑의교회 새생명축제 개최

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를 강사로 새생명축제를 개최했다.

부흥회 둘째 날 “축복”(창39: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동원 목사는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동원 목사는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에서 찾고, 정치기의 성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자고 독려했다.

이 목사는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다. 요셉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았다”며 “나 자신과 가족만 잘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에서 온 세상에 축복을 흘려 보내는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중하다가 축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멸망 받아 죽을 수 밖에 없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됐다”며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6회 정기회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6회 정기회 개최

세계예수교장로회(World Presbyterian Church, WPC) LA 중앙노회 제6회 정기회가 조이폴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 예배로 노회장 김정호 목사(조이폴교회 담임)의 “모이기에 힘쓰는 노회”(히 10:24-25) 설교와 부회장 김성권 목사(필랜 성은교회 담임)의 성찬 예식, 신관호 목사(생명의 빛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2부로 회무를 진행하였다.

노회원들의 참여와 기도 덕분에 제6회 정기 봄노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 제 6-9회기 임원 선출에 노회장 김정호 목사, 부회장 김성권 목사, 회록서기 정앤드류 목사, 회계 양한석 목사, 서기 김경식 목사가 선출되었다.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에 페트라유니버시티(Petra University)가 귀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B.Th, M.Div, D.Min 과정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유학비자가 가능하다. 문의 213-210-3877. www.petrauniversity.org

김민선 기자

아픈시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나?

교회는 역사속에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되어 왔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우리에게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적 은혜도 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시대의 과제 앞에서, “2023년 봄학기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서는 “세상을 향한 선교적 교회” 라는 수업을 통해

오순절 전통과 신앙의 유산에서 교회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아픈 시대 속에서 교회 회복을 향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10개의 수업 강의 중 2개의 강의를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 부흥을 향한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간식과 선물 제공)

“오순절 신학적 입장에서 선교적 교회론”

강사: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날짜: 3월 28일 화요일
시간: 5:00pm - 7:00pm
장소: 베데스다대학교 1층 채플실
730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현장 수업 / Live Streaming 동시 제공)

강사소개
파라과이 델 에스떼순복음교회(개척) 담임
브라질 쌍파울로순복음교회 담임
순복음세계선교회 중남미총회 총회장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진) 베데스다대학교 총장
현)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현) GBC 미주복음방송 이사
현)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선교적 교회의 실제적 예: 타이페이순복음교회”

강사: 장한업 목사 (대만 타이페이순복음교회 담임)
날짜: 3월 29일 수요일
시간: 7:30pm - 9:30pm
방식: Zoom
Meeting ID: 404 260 7555 (No Password)

강사소개
순복음세계선교회 중국 총회장
순복음세계선교회 대만 총회장
현) 대만영산신학원 원장
에스라사역연구소 소장
대만 타이페이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나는 신이다> 조성현 PD “다큐 이후 JMS, 상상 못한 결말”

“이 모든 변화, 메이플·프란시스의 용기 있는 고소에서”

MS 정명석과 오대양(박순자), 아가동산(김기순)과 만민중앙교회(이재욱) 등의 사이비 이단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조성현 PD가 16일 JMS 탈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소회를 밝혔다.

3월 16일은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생일이자 JMS에서 ‘성자승천일’로 부르는 날로, 다큐 공개 후 사이비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가세되고 변호인단까지 사임한 데 대한 의견을 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16일에는 홍콩 출신 JMS 탈출신도 메이플 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조성현 PD는 “(1년 전) 저는 기자회견은 무리일 것 같으니 기자회견을 취소하자고 했지만, 메이플은 ‘하나님도 저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현 PD는 “(객관성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 편에서 있다 해서 다큐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넷플릭스

조 PD는 “(최근 변화는) 상상도 못했던 결말”이라며 “이 모든 변화는 메이플과 프란시스의 용기 있는 선택, 고소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며 절실히 느낀 것 중 하나가 법은 절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정명석에게 10년 형을 선고해 추가 피해자들이 나오게 한 것도, 제가 안쓰럽게 생각하는 아가동산 낙원리와 강미경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도,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사건 방송금지가 처분을 인용한 것도 다름 아닌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지적했다.

조성현 PD는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겠지만, 범무법인 광장이 정명석을 꼭 변호해야 했을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부터 이번 상영금지가 처분 건까지 아가동산 김기순 씨를 변호해야 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 PD는 “돈은 정치적 지향성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사라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느낄 뿐”이라며 “딸자식을 여럿 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활영팀 위치를 파악해 결국 정명석을 경찰 체력단련실로 빼돌려 카메라로부터 피하게 만든 일만 보더라도 말이다”라고 전했다.

아가동산을 취재하다 반론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상파 PD, 대단한 직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일한 적이 없던 제가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철저히 약자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며 “그렇기에 더욱 여러분의 316을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감리교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 심화...최대 위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목회장 이철, 이하 감리교)가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편입시키는 <교리와 장정>에도 불구하고 교단 본부의 미흡한 대처로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목회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감리회재산수호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감리교 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광화문빌딩 16층 감리교 본부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리와 장정>과 재산을 지켜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민동원 목사[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사무총장], 최항재 목사(감거협 서기), 성모 목사(바른선거협의회 소송지원단장), 박승복 목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본부 행정기획실(실장 이용운 목사)을 상대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을 접수했다.

이들은 “존 웨슬레 신앙의 정신으로 세워진 감리교회는 교회의 조직 구성과 재산 관리 형태가 천주교에서 성공회로, 성공회에서 감리교회로 이어져 정착되었기에 교단 분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고 재산을 수호했기에 재산 이탈, 교단 탈퇴가 없고 단일 교회로 전통을 이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근래 들어 유지재단이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고 <교리와 장정>을 폄훼했다. 감리교회의 헌법에는 ‘증여’로 기록되어 있지만 교인이 단결하면 ‘신탁’이라고 인정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교회로 번져, 교인이 단결하면 재산 이탈과 교단 탈퇴가 용이하다는 소문이 팽배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리교회 재산 분쟁 사건의 쟁점은 증여나 신탁이냐에 있다.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교단 내 모든 교회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은 “감리교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한다”고 규정한다. 고정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도 교리와 장정과 각 규정이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않은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했으며, “교회 분규로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는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개 교회 재산은 신탁이 아닌 증여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들은 “하지만 2008년부터 잇따라 개교회들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산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감리교회도 타 교단과 같이 신탁된 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유지재단과 감리교 본부가 ‘신탁’이라는 확인서를 써주면서 재산 분쟁이 거듭됐다. 감리교회 공동체의 재산이 이탈되고 있고, 교인 총회에서 교단 탈퇴가 결의되면 바로 재산을 찾아가는 일이 반복돼 감리교회는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부 행정기획실 측은 이러한 주장에 “(‘감리회 재산은 신탁이다’라는) 동의서를 써준 것은 맞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명의신탁’이라는 교단에 분리한 주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해명했다. 송경호 기자

총신대 동성에 동아리 ‘강총강총’ 실제 확인 ‘충격’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총신대학교 내 이른바 ‘동성에 동아리’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학교 측은 ‘강총강총’이라는 이름의 이 동아리와 관련된 학생 6명을 징계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2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약 1년 만에 그 실체를 확인하고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게 된 것.

지난해 12월 13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김기철 이사장은 “학생 지도가 학교 및 총장 관할 사항이지만 동성에 관한 부분은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사회가 보고받고 살펴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올해 2월 7일 열렸던 이사회에 조사 대상 6명 학생들에 대한 각각의 징계 처분 사항을 보고했고, 이사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

‘강총강총’이라는 이름의 동성에 동아리가 총신대 내에 있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지만, 공식 동아리가 아니어서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있었다.

지난 2016년 6월 서울광장에서 쿼어축제가 열렸을 때 ‘강총강총’이라고 적힌 깃발이 현장에 등장했던 적이 있다. 이후 총신대가 속한 예정 합동 측은 학교에 ‘총신대 내 성소수자(동성애)가 있는지 확인·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당시 총신대 깃발을 들고 행진한 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신대 학생이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회신했던 바 있다.

아울러 “학칙에 의거해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에 대해 제적 처리한다”며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 아래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동성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지도와 교육에 더욱 노력할 것”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강총강총’의 실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학교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총신대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동성애가 이미 신학교에까지 깊이 침투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신대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이 학교 구성원들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갱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담임목사 청빙 공고

공고일: 2023년 3월 6일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으로 지난 5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온 교회로서, 400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며,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PCA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1032 Manchester Rd, St. Louis, MO 63122
http://www.kpcstl.org

자격요건 |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M. Div.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
- 목회 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 한국어 설교와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
-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의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Requirements

- 이력서,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추천서 2장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Website link도 가능))

일반사항 | General

- 모든 서류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되면 공고를 즉시 마감합니다.
-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보내실 곳 : apply.kpcstl@gmail.com)

JMS를 향한 이찬수 목사의 분노... 그리고 반성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가 19일 주일 설교에서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설교에서 미국에서 사역하는 존 파이퍼 목사의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책에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어 먹은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라며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차 있어서 위대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한 존 파이퍼 목사의 글을 인용했다.

이어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안다"며 "너무 육신의 요구와 소욕을 크게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로 꽉 채워져 있기에 영혼의 배고픔을 잊게 만든다"고 했다.

이목사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절실한 것은 배고픔의 문제이다. 초보 엄마들 중에는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심심해서 운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얼굴에 장난감을 대고 흔들어서 배고파서 민감한 아이들을 더 심란하게 하거나,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 막 위아래로 흔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베테랑 부모들은 아이들이 울음만 들어도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심심해서 우는지 바로 알고 해결책을 준다"며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자꾸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허기가 지나면 인생이 자꾸 허무해지고 외로움을 느낀다. 이것

은 영혼이 목말라서 그렇다. 인간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명품가방을 사거나 초등학교 이성 동창 친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된다"며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마치 초보 엄마가 아이의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고 장난감을 흔들며 대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목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목회자이자 교수인 이상훈 교수의 칼럼을 인용했다. 그 칼럼에서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족여행을 가서 경험한 내용을 얘기한다. 이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에 위치한 '유니온 스퀘어'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화려한 명품관들이 즐비한 곳에 들러서 주차할 곳을 찾다가 뒷골목에 들어섰다. 화려함 뒤의 그림자 같은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에는 마리화나 냄새가 진동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지나가는 무기력한 행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찬양과 예배로 뜨거워 '지저스 컬처'(Jesus Culture)를 방문하고, 그 살아있는 예배에 너무 감동했고 이것을 글로 썼다.

이 교수는 칼럼에서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갈급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나는 이 시대의 목마름을 보았다. 격하게 반응하는 회중의 모습은 '지저스 컬처' 교회의 유명세나 화려한 음악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이 목마를 때문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이 표현되고 있었다. 그 순간 샌프란시스코의 뒷골목이 떠올랐다.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리의 사람들 가난과 상처로 발생한 공허함을 술과 마약으로 채우고 있



이찬수 목사가 주일예배에서 설교하고 있다. ©분당우리교회 유튜브 채널 캡처

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교회에 예배하기 위해 옷을 정갈하게 잘 차려입은 우리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국 이곳에 있는 우리들 역시 내면의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고 있는가? 철창 같은 회색 도시에서 매일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교회는 알고 있는 걸까? 겉으로 보이는 역동성과 활기 뒤에 감추어진 외로움과 목마름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찬수 목사는 이 칼럼의 글에 대해 "이 교수는 너무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에 공통점을 찾아냈다. 뒷골목에서 마약에 의해 쾅한 눈을 갖은 사람도 목마름에 의해 시작했고, 뜨겁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목마름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한쪽은 그 결핍을

육신의 것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술과 마약 속에 황폐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 결핍을 영혼의 문제로 해석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화시킨다"고 했다.

이목사는 JMS를 다룬 최근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점이다. 크리스천들이다. 더 잘 믿어보려고 그 곳에 갔다. 내가 그 악한 것들 상대로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며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나 같은 기성교회 목사이다. 여기서 안 채워지니까 여기서 해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를 찾아가고 JMS도 찾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교회가 박물관 같은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기자

빌리 그레함 50주년 대회, 10만 명 규모 예상... 결신자 1만 목표

찬양대 1만 명, 중보기도자 1천 명, 오케스트라 1백 명

오는 6월 3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1973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의 참석자 규모는 약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념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의식 목사)는 17일 오전 서울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기념대회 중간보고 및 단합대회를 가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회 진행 상황을 보고한 준비위 사무총장 박동찬 목사(일삼광림교자회)에 따르면 기념대회 당일 10만 명이 참석할 경우, 이들은 6만5천 석의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스크린을 설치한 야외 공간에서 집회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극동방송을 통해 참가를 접수한 이들의 숫자는 약 2만5천 명이며, 교회는 약 3천 5백여 곳이 된다고 한다.

찬양대도 1만 명으로 조직할 계획이다. 현재 7천여 명의 찬양대원을 모집했다. 오케스트라는 1백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중보기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단합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극동방송

도자 1천 명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기념대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자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일 결신자들에게는 성경 요한복음을 나눠준다고 한다.

현재 준비위 조직은 50년 전 전도대회 당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통역했던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상임고문,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대표대회장, 김삼환(명성교회 원로)·장중현(예장 백석 총회장)·이영훈 목사(한교총 대표회장)가 대회장이다.

아울러 국내 23개 교단의 총회장들이 공

동대회장을, 교계를 비롯한 정치계·학계·경제계 등 각계 인사들이 자문위원을 맡는다.

기념대회 설교는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전한다. 또 기념대회 하루 전,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열리는 청소년 집회에서는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인 윌 그레함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박동찬 목사는 "민음의 유산이 다음세대로 잘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흥의 발판이 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단합대회에서 '복음 외에 복음

없다!'(갈라디아서 1:7-8)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감동시키는 뉴스는 복음밖에 없다. 영원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세상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없다"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복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목사는 "50년 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때 복음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며 "이번 5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 동안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레함 목사 한국 전도대회'에는 연인원 약 320만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 중 약 7만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6월 3일 주일 집회에는 약 110만 명이 참석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 기독교 집회 역사에 기념비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송경호 기자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 '사역자 위한 쉼터' 로 변신

'빌리의 홈 플레이스' 이름으로 무료 제공

세계적인 전도자 故 빌리 그레함 목사와 아내 루스 사모,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았던 노스캐롤라이나의 주택이, 지역 사업가이자 배우인 키크 캐머런(Kirk Cameron)과 그레함의 셋째 딸의 도움으로 선교사와 목회자들의 쉼터로 변화했다.

'빌리의 홈 플레이스'(Billy's Home Place) 웹사이트에 따르면, 샬럿의 사업가 스테판 L. 토마스(Stephen L. Thomas)와 배우 캐머런 및 작가 겸 연사인 루스 그레함(Ruth Graham)이 이를 위해 힘을 합쳤다.

웹사이트는 "이곳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직업 선교사나 목회자로 봉사해 왔다면 몇 달간의 목가적 안식과 안식년을 가지라. 빌리의 홈 플레이스에 머무르는 목사나 선교사에게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한 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사택. ©Single Point Media

레드핀(Redfin)에 따르면, 이 주택은 약 2년 전 59만 9천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가 2021년 9월 1일 75만 달러에 매각됐다.

루스 그레함은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이 1940년대 후반에 이 집을 구입하셨다"며 "두 분이 이 집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조부모님의 집이 바로 건너

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가족이 이 집에서 살던 시기에 태어났다. LA 크루세이드(LA Crusade)와 아버지의 영국 여행이 그 시기에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그 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1957년에 이사했지만 몬트리올에 남아 있었으며, 이 집은 최근 몇 년간

임대료 사용됐다. 방문자들은 내부에 놓였던 가구, 책, 사진 및 기념품 등을 통해 그레함 목사와 가족의 과거 생활을 살펴볼 수 있다. 2층 주택은 여전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그림 같은 산책로와 개울로 둘러싸여 있다.

'빌리의 홈 플레이스' 웹사이트는 "이 집은 그레함 박사의 유산을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 지친 목회자들과 선교사를 위한 안식처이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위안을 얻는 장소로서 빌리의 홈 플레이스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또 "빌리 그레함 목사의 집은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쓰임을 받았다. 그가 설교를 작성하거나 연구에 매진했던 2층 서재의 작은 책상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그가 기도하는 데 바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했다.

아울러 "그레함 목사는 전 세계 스타디움과 콜로세움에서 연설하며 결국 '미국의 목회자'라는 칭호를 얻었지만, 그의 초기 사역은 이 겸손한 산속 저택의 벽난로와 식탁 주변에서 펼쳐졌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신앙 지도자들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3가지

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아이야나 조던 박사 조언

미국의 중독 정신과 의사인 아이야나 조던(Ayana Jordan) 박사가 신앙 지도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때 '최적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그녀는 2021년 교회 지도자였던 삼촌의 자살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뉴욕대학교(NYU) 그로스만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던 박사는 컬럼비아대학교 티쳐스 칼리지(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의 국제종교간 연구소(International Interfaith Research Lab)와 종교 기반 및 공동체 파트너십을 둔 뉴욕시장실에서 주최한 정신 건강 지도자회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나눴다.

조던 박사는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기간 우리가 겪어 온 사회적 고립과 감정적, 심리적 압박에 면역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생명의 원천에 무엇을 공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녀는 "난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심리적·영적 안녕, 감정적·육체적 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웰빙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

다. 먹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가? 당뇨병이 통제 불가능하다면, 내 안에 우울감이 있다면, 불면증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감사

정말 매일 일어나서 감사함을 느끼며, 정말 감사를 실천하고, 큰 소리로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풀어 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뇌를 훈련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대뇌변연계에서 발생하며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을 방출하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상 양쪽의 정맥 내에 구조화되어 있다.

2.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신선한 야외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매우 치료 효과가 있다. 자연에서 어떻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자연의 산소를 들



아이야나 조던(Ayana Jordan) 박사.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어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생각하고 있다. 나중에 산소 바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연 속에 거하며 실제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정신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고 헤모글로빈이 우리가 잘 자라야 하는 기관의 위치로 산소를 가져갈 수 있다.

3. 자기 돌봄

자기 돌봄을 실천하면 신앙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일반적인 탈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적, 감정적,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필수 요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고 근시안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궁핍함을 갖는 것이다. 한 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일정을 잡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한편 2021년 1월과 2022년 3월 바나그롭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외로움, 정치적 분열 및 교회 쇠퇴 등의 우려로 직장을 그만둘 것을 고려하는 목회자들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사역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 목회자의 비율이 2021년 29%에서 2022년 3월 42%로 13% 증가했다.

바나그롭의 교회 참여 담당을 맡은 조젠슨(Joe Jensen)은 당시 크리스천포스트(CP)와 인터뷰에서 "사임을 고려하는 목회자들의 수가 증가한 사실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젠슨은 전염병의 여파로 많은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을 지적하며 "이 특정 통계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2016년과 2017년에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수행한 목회자 현황 보고서에서 이를 추적해 왔다. 이 정확한 통계는 없었지만 번아웃을 추적하고 있었다. 목회자들은 소진되고 위험 요소가 관련돼 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美 3개주, 올해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 통과

아칸소 · 미시시피 · 테네시주 통과...22개주, 법안 논의중

올해 들어 미국의 아칸소, 미시시피, 테네시주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백티스트프레스(BP)에 따르면, 유타와 사우스다코다주를 포함한 5개 주가 어린이 성전환 치료를 금지시켰으며, 22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심의 중이다.

2021년, 미국 연방법원은 아칸소주에 법안을 초안대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주 의회는 이달 8일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에게 새 법안을 발송했다.

아칸소주 법안은 성전환 치료를 받은 미성년자가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성인이 된 후 18년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성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브랜트 레더우드 남침례교 윤리종교자

유위원회(ERLC) 위원장은 새 법안이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호"라고 평가했다.

레더우드는 BP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갖고 있으며, 그 원칙이 미성년자 성전환 금지법에 완전히 적용된다고 말해왔다"며 "아이들은 사회적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제안은 해당 주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소송과, 의료 시술로 인한 사망한 경우에 각각 30년과 10년의 소멸시효를 부가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테네시 주에서 발효된다.

한편, 테이프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즉각 발효되는 '미시시피 실험



©Duy Pham/ Unsplash.com

적 청소년 시술 규제법안'(REAP)에 서명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아동에 성전환 치료 금지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시술 수행 또는 유도를 돕거나 방조하는" 고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또 해당 치료를 제공한 의사 및 의료 전문가는 의료 면허가 자동 취소된다.

테네시주와 마찬가지로, 미시시피주 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로 인한 피해를 제기하는 소송에 대해 30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또 앨라배마주 법은 18세 이하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제 사용을 범죄화했으나, 주법원은 2022년 5월에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전 10:00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목요일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목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연구 오후 7:30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주일)
 스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 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센타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가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수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주일학교 & Youth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일성경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주일예배 저녁 8시
 주일(온라인) 새벽기도 주일예배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크라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크로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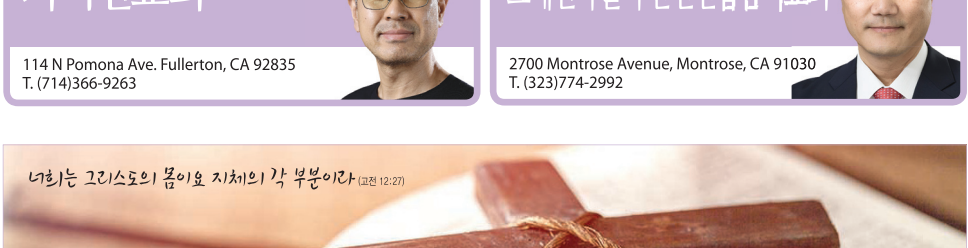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영어) / 금요일 오후 8:00(영어)
 피뎀주일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영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토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30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만2세를 복음화하며, 이만2세 복음화하여,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e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함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美 새들백교회 담임목사, 여성 목회자에 대한 교회 입장 옹호

미국 남침례회(SBC)가 여성 목사를 교육목회자로 임명했다는 이유로 새들백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한 후, 이 교회 담임인 앤디 우드 목사가 여성 목회자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우드 목사는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우리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간성의 렌즈를 통해 우리의 해석을 유지하고 우리가 결함이 있는 인간임을 이해한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와 같은 것이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이유다. 교회와 다른 교사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했다.

우드 목사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이 두 개의 성별을 가지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설계상 서로 매우 다르다고 확신했다. 우드 목사는 "오늘날 주류 문화는 성 전환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지만 새들백교회가 문화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는 신약에는 "영적 직분"과 "영적 은사"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적 은사는 선지자, 사도, 전도자, 목사, 교사의 다섯 가지라고 덧붙였다. 우드 목사는 이러한 은사들이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약성서에서 씌름해야 할 질문은 사도의 은사, 목회자의 은사, 전도자, 목사, 교사를 가진 남자와 여자가 모두 있었느냐는 것"이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신약을 연구할 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다.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종종 논란이 되는 질문은 여성에게 그러한 영적 은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역 교회의 특정 영역에서 기능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 모두에서 신약 전체에 걸쳐 우리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및 교사를 본다"고 했다.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왼쪽 두 번째)와 그의 아내 케이 워렌(맨 오른쪽)이 앤디 우드 목사(오른쪽 두 번째) 부부와 찍은 사진 ©새들백교회

이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지역교회에서 목자들이었으며 목양하고 있었음을 매우 분명히 본다. 교사에 관해서는 로마서 16장 1-2절에서 바울은 특히 비비아라는 한 여자를 칭찬한다.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역할을 하는 여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 다섯 가지 기능을 생각할 때 지역 교회에도 직분이 있다. 특히 신약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다... (그들은) 장로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을 포함한다. 여기서 질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 두 직분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정과 지역 교회의 권위 구조를 설계하신 방식은 남성들이 장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로인 남성은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이 지역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사용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설명적인 각도에서 이것을 본다"고 했다.

우드 목사는 "우리는 모두 남성인 장로 그룹이 있다. 우리 무대에서 가르칠 여성들이 있다"라며 "우리 교회의 모든 남성 장로들은 여기 새들백에서 여성들이 가르치고 영적 은사를 행사하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달 SBC 집행위원회는 SBC 자격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5개 교회가 여성 목사직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남침례회와 우호적인 협력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목회자가 알아야 할 4가지 교인 유형은?

미국의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 박사가 최근 웹사이트 '처치앤서즈'(churchanswers)에 '출석 빈도에 따른 교인의 4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했다.

다음은 처치앤서즈가 분류한 교인의 4가지 유형과 신자의 비율이다.

- 1. 핵심부 (한 달에 3~4회 출석)
핵심 교인들은 지역 교회가 우선순위에 있다. 그들은 핑계를 대기보다 더욱 헌신한다. 이 그룹은 교회 헌금의 80%에서 90%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가장 먼저 자원하고, 가장 늦게 불평하며, 교회의 핵심이다. 이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교인의 약 30%로 추정된다.

- 2. 주변부 (한 달에 1~2회 출석)
일부 교인들은 한 달에 1~2번 참석하는 사람을 주변부로 분류하는 것에 불편해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많은 교회가 이 범주에 속하는 장로와 집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교인들은 기껏해야 격주로 참석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미지근하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주변부가 교인의 25%일 것으로 추정한다.

- 3. 변동적 (일 년에 4~10회 출석)
1년에 4~10회만 출석하는 교인은 교회를 떠나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곧 변동의 마지막 범주에 들거나, 완전히 탈락할 것이다. 그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변동적인 교인이 25%를 차지한다고 추산한다.

- 4. 문화적 (일 년에 1~3회 출석)
과거에 이 범주에 속한 교인의 비율은 훨씬 더 컸다. 문화적 교인들은 단지 자신이 교인이라고 말하기 위해, 1년에 1~3번씩 산발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

그들은 사업적, 정치적, 또는 관계성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기독교인이나 교회 구성원이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문화적 교인은 일반적인 교인의 20%로 추산하지만, 이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이 되는 것이 문화적인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의 반응
교인의 헌신이 줄고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헌신을 최소화한다.

교인 집단을 기독교인으로 간주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인 사례에 기초하여 각 범주의 교인에 대한 기독교인의 비율을 추정했다.

핵심부: 기독교인이 90%.
주변부: 기독교인이 60%.
변동적: 기독교인이 30%.
문화적: 기독교인이 10%.

레이너는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나의 신학은 교인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며 "그러나 압도적이진 않지만, 많은 교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는 강력하다. 그분의 교회에 대한 헌신 없이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은 신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했다.

끝으로 "비활동적인 교인은 여러 면에서 모순된다. 주변부, 변동, 문화적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모잠비크서 수감된 美 선교사 외 2명 석방돼

모잠비크에서 반군을 지원한 혐의로 4개월 이상 수감됐던 미국인 선교사 1명을 포함한 3명이 풀려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항공선교회(MAF)에 따르면, 라이언 코허 선교사와 2명의 남아공인 W.J.두 플레시스와 에릭 드라이아가 지난 14일 오후 늦게 감옥을 떠났다.

코허 선교사의 대변인은 그가 석방된 후 “잘 지내고 있다”면서 “석방된 이후 아내 애나벨, 두 아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CP에 전했다.

세 사람 모두 모잠비크에 남아 있어야 하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CP는 전했다.

MAF 대변인은 “이 결정에 대해 모잠비크 법원에 감사한다”라면서 “변호인으로부터 사건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계속 배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MAF는 성명을 통해 “미국 MAF 경영진은 라이언 선교사와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라며 “최종 결과가 모든 혐의와 재판에서 라이언 선교사의 완전한 석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앞서 코허 선교사의 아내 애나벨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할 수 없지만 코허 선교사가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그가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녀는 CP에 “분명히 전반적으로 검사가 라이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을 기각하고 석방되어



국제항공선교회 소속 조종사인 라이언 코허(Ryan Koher) 선교사와 가족들.

집으로 돌아와 곧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기도했다”라고 말했다.

코허 선교사와 체포된 다른 두 명의 MAF 자원봉사자는 지난 2022년 11월 모잠비크 최북단 지방인 카보 델가도에 소재한 고아원으로 가는 비행기에 비타민과 기타 물품을 실을 준비를 하던 중 체포됐다.

2017년부터 이슬람국가(ISIS)와 연계된 것으로 여겨지는 반군이 아프리카 국가 북부 지역의 마을, 교회, 모스크를 점거해 수백 명이 사망했다.

지난 5년 동안 보안군과 반군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약 1백만명이 카보 델가도에 있는 마을을 떠났다.

MAF는 지역 파트너인 엠배서더 에비에이션(Ambassador Aviation)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다양한 고아원에 보급품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수단서 기독교 개종한 여성 사슬에 묶고 전기 충격까지



수단의 교회 벽이 훼손된 모습. ©월드와치모니터

수단의 한 젊은 여성이 이슬람을 떠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사슬에 묶이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 또한 남편에게 빼앗기게 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수단 옴두르만에 살고 있는 아와티프 압달라 카키(Awatif Abdalla Kaki·27)는 지난 1월 27일 한 친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며칠 후 그녀는 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이어 남편과 네 명의 아이들이 있는 카르툼(Khartoum)과 부모님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옴두르만(Omdurman)에서 새로운 믿음에 대해 전했다.

이에 남편은 그녀의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놓고 그녀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했다. 또 그녀를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의지와 상관없이 정제 불명의 주사를 맞고 전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압달라는 쇠사슬로 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남편은 아이들을 친정으로 데려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위협적”이라고 전했다. 그녀의 네 자녀 중 첫째는 8살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그녀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그녀의 부모와 형제·자매는 모두 그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을 앓고 있다

고 믿는 무슬림이다. 그녀의 안전이 우려되고, 그녀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로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집 밖의 피난처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압달라는 어떤 기독교인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3년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수단은 10위를 기록했다. 이 나라에서는 NGO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종교 자유 개혁이 국가 차원에서는 이뤄졌으나 지역적으로는 아직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는 “수단에서는 배교의 비범죄화와 교회 철거 중단으로 상황이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보수적 이슬람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 기독교인들은 교회 건축 허가 취득 문제를 포함해 차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2019년 수단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지독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특별우려국목록(CPC)에서 삭제하고 감시국가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수단을 특별감시목록에서 제외했다. 수단은 이전에 1999년부터 2018년까지 CPC로 지정됐었다.

한편 수단의 기독교인 인구는 200만 명으로, 전체 4,300만 명 중 4.5%로 추산된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발리예배 주일 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303-8887

OC예배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 토 오전 6:00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9: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옥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콜라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대(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주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만찬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1:00 GPC(EM)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한국교회토요일 오전 9: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벧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정애민예배 오전 11:30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521-0991 / F.(714)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언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교목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562)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장모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혁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오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청년부 오후 2:3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종교부예배 주일 11:00am 토요일 오전 11:15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근방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otmail.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이제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95**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열방에 부는 교회 개척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4월에 있을 목회자 비전 캠프에 목회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다. 아직 선교적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선교와 교회 개척 운동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 교회들을 열방 선교에 동참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필자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필자는 튀르키예(터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척의 부흥을 직접 바라보고 있고, 그들 중 일부와 동역 관계를 갖고 함께 참여하고도 있다. 비단 교회 개척은 튀르키예뿐 아니라 중동 및 아랍권의 많은 나라들에서 마치 산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집트에서도 천 년 이상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콕트르 그리스도인들과 개신교 선교사들과의 만남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수백,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카이로 근교 목가탄 마을 동굴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은 실로 가슴을 뛰게 하였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다민족 연합예배 집회가 있다. 이라크에서도 선교 훈련을 받은 개종한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아랍국으로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를 떠나고 있다. 그 수가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란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내 안에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하여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다. 종교적 자유를 선택한 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여러 나라들로 망명했고, 난민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다. 필자는 이란 교회에서 세례식을 베푸는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 번에 수백 명의 개종자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지역 6개국 모두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 중 모로코가 가장 안정되고 이웃 나라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로 꼽는다. 모로코는 수도인 카사블랑카를 포함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들이 5개 있다. 남북으로 지중해를 끼고 길게 북쪽 끝

스페인을 바라보는 바다까지 있는데 그 도시마다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다녀온 이스라엘에서도 교회 개척이 점점 활력을 받고 있다. 아직도 미국 안에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많은 분은 십자가가 높이 달려 있는 큰 예배당을 갖고 넓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의 교회를 생각한다. 적어도 어느 상가 건물 한 곳을 빌려 작은 예배당을 갖추고 윈도우 바깥에 큰 글자로 교회 이름을 쓴 교회를 생각한다. 그러나 열방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 교회이다. 가정에서, 많게는 수십 명씩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면 그 인원이 또 분립하여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다가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연합하면서 교회들의 연합예배 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필자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수를 상상할 수 없었다. 2, 3백 명이 모여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지고 한 설교자가 서는데 놀라웠다. 수도 놀랐지만, 그 구성원들이 더 충격이었다. 메시아니즘(유대인 그리스도인), 팔레스타인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민족 아랍인들, 알리아 유대인들 등 다민족이다. 그것도 원수 된 민족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매달 갖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필자가 경험한 열방 속에서의 교회 개척 부흥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튀르키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미 튀르키예 안에는 아랍권 대부분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 교회 개척 부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비엔나에 아주 온화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공작이 너무 온화해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자 시민들이 법을 경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가 아닌 여자와 동거하는 남자의 사형은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이 법을 범하는 남성들에 의해 희생당하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공작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 법을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작은 안젤로를 공작 대리인으로 세우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은 폴란드에 간다고 해놓고 돌아와 탁발 수도사로 변신해 비엔나에 머물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엔나에 클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줄리엣과 애정행각이 발각되었고 안젤로는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이 구명운동을 했지만, 안젤로는 법을 허수아비로 만들 수 없다며 강행합니다.

클라우디오는 면회 온 친구 루치오를 통해서 여동생 이자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침 그 날은 이자벨이 견습 수녀생활을 마치고 정식 수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자벨은 오빠의 딱한 소식을 듣고 수녀 되기를 포기하고 오빠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자벨은 오빠의 구명을 위해 안젤로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이자벨은 안젤로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간청하며 오빠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자벨은 ‘우리 오빠와 같은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나?’며 도전을 하는가 하면, 안젤로에게 자신은 오빠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뇌물을 준비하겠는데 그 특별한 뇌물은 자신의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자벨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애원하다 돌아갔습니다.

이자벨이 돌아간 후에 안젤로는 이자벨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자벨이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젤로는 이자벨을 만나 그녀를 유혹하기로 했습니다. 안젤로는 이자벨에게 ‘줄리엣이 오빠 클라우디오를 찾아가 것처럼 밤에 당신이 나를 찾아온다면 당신의 오빠는 죽음을 면할 것이요.’라며 이자벨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이자벨에게 자신이 이자벨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자벨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파는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자벨은 감옥에 있는 오빠를 찾아가서 형편을 설명하며 애원하였습니다. ‘오빠! 몇 년 더 살려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오빠 그냥 사형을 받아들여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동생이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자벨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픈 맘을 갖고 오빠를 만나러 감옥에 가니 탁발승이 오라버니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탁발승은 사실 탁발승으로 변장한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줄리엣을 만나 줄리엣과 클라우디오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젤로도 클라우디오가 가진 문제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젤로는 프레드릭의 동생 마리나를 지참금이 없다고 버렸습니까. 수도승으로 변장한 공작이 계획을 짰습니다. 안젤로에게는 이자벨이 간다고 말해 놓고 이자벨 대신 안젤로에게 버림받은 마리나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가 이자벨인 것처럼 행동하여 안젤로와 마리나가 하룻밤을 보내게 계획을 했습니다.

마리나는 안젤로가 이자벨에게 준 열쇠들을 들고 안젤로를 찾아가했습니다. 차례로 문을 열고 안젤로 집에 들어가 이자벨이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자벨이 시킨 대로 한마디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 한 마디는 ‘우리 오라버니를 잊지 마세요’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공작은 자신이 복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자벨은 복직한 공작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오라버니의 범법과 체포 그리고 판결을 설명하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유혹에 응

했는데 오라버니는 여전히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마리나가 나타나 탄원하였습니다. 마리나는 자신이 안젤로의 아내임과 자신이 이자벨을 대신해서 안젤로를 찾아갔고 하룻밤을 보냈음을 폭로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대리 공작이었던 안젤로의 죄가 폭로되었고 안젤로도 사형을 당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작은 안젤로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안젤로의 재산을 모두 마리나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더 좋은 남편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마리나가 공작 앞에서 무릎 꿇고 안젤로와 결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자벨도 마리나와 같이 청원하였습니다. 공작님! 사실 마리나 까닭에 저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리나를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안젤로 경도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상황을 아는 공작은 고심하는 척하더니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안젤로에게 마리나와 재결합과 그녀를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클라우디오에게는 줄리엣과 결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절과 품격을 지닌 이자벨에게 청혼했습니다. 줄리엣과 결혼한 클라우디오는 개과천선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자벨과 결혼한 공작은 더 좋은 통치자로 비엔나를 통치했습니다. 이상은 셰익스피어 희곡 ‘범법은 법으로’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범법은 법으로’는 일종의 역설입니다.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자에는 자에로’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정리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법 집행을 주장한 안젤로가 스스로 그 범법자였습니다.

이 작품은 이 작품에서 삶이란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변합니다. 법을 넘어선 인간미와 인간애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본 작품은 이 세상에는 비엔나의 공작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변합니다. 똑똑한 안젤로의 법이 아닌 공작의 따뜻한 맘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힘입니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교육의 리더십(M.D.A.) 상담학부, 선교학부,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KIDOK SHOP과 함께 합니다. www.kidokshop.com

1차 완판 감사!!

“ 뜨거운 관심으로 1차 물량 완판 ”

“ 2차 물량 판매 개시 ”

100세 시대!!

“ 이제 굽은등을 펴세요!! ”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등이 펴지면 인생도 펴진다

볼륨 UP

100% 국내생산

지지대 없이도 탄성 있게 자세를 잡아주는 등판

\$45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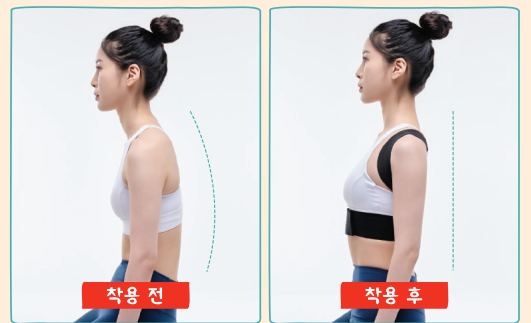


완판감사! 추가선물

3월 31일 까지

탈부착 이동이 가능한 폭신한 어깨패드 (10볼이상)

어깨패드는 거드랑이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추가 구성품으로 피부가 예민해 밴드가 조이는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함께 구입하여 같이 착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비스타 어깨밸런스 슬림 바른자세 고정밴드 허리 등 목 고정기

리비스타 멀티 발목 보호대 하나로 다양하게

1 건설 협회 추천 최우수 제품 선정

BEST SELLER

리비스타 압박밴드 시리즈

발목 손목 종아리

리비스타 ANKLE SUPPORT 리비스타 WRIST SUPPORT 리비스타 CALF SLEEVES

건설현장/요식업/ 컴퓨터 사용시/골프/테니스등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발목 관절과 인대부위를 압박하여 발목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 보호해 줍니다.

빈틈없이 꼭 잡아!

리비스타 손목 보호대 걸고 감으면 끝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루종일 내 손목을 지키는 손목지킴이 1mm 얇고 가벼움, 손목에 착~ 밀착!!

대한민국 1등 비타민

기초건강 · 항산화 · 에너지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모두 한 알에 담았습니다.

영국산 100%

비타민C사실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려온단 비타민C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를 사용합니다.



고려온단 미국 공식 딜러 정품라벨을 확인하세요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비타민 먹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멀티비타민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 **기독샵**

KIDOK SHOP

교회, 단체 행사선물 상담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상담!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스캔하고 상담하기!

www.kidokshop.com

213-235-6663

도소매 타주 판매점 모집 문의 **올코샵**

3055W. 7th Street Los Angeles CA90005

강준민 칼럼

어떻게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저의 소원 중의 하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꾼을 세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꾼을 택하라”(행 6:3).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 디모데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행 16:2).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고후 6:4),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롬 15:16), “복음의 일꾼”(골 1:23), 그리고 “교회의 일꾼”(골 1:25)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꾼에게는 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란 완수해야 할 과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맡기십니다. 또한 인생의 계절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 예루살렘 성벽 건축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 저는 한때 성품을 강조하고 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중에 성품과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고 싶은 갈망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착한 태도를 갖고 일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마 25:23)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일꾼은 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마음은 드러나지 않지만 태도는 드러납니다. 태도는 몸의 자세와 같습니다. 올바른 자세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듯이 좋은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일꾼은 먼저 보이

지 않는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어 착한 태도를 갖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적은 일에 충성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마 25:23)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 16:10)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은 데서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충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충성된 일꾼이 칭찬을 받습니다. 요즈음 충성이라는 단어는 잊혀진 단어입니다. 우리는 잊혀진 단어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이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개역한글).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신 분입니다. 한두 번 충성하고, 잠시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충성된 일꾼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칭찬할 때 신실한 일꾼(골 1:7, 4:7; 고

전 4:17)이라고 칭찬합니다.

넷째,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연기와 기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듯이 열매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되 많이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요 15:5).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엢 5:18; 갈 5:22-23).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일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을 통해 상을 받습니다. 일을 통해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훌륭한 인물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갈등과 상처를 견디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훌륭한 인격을 가꾸었습니다.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고전 4:2).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 중의 하나는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호 칼럼

‘영성’ (靈性, spirituality)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궁금한 단어 중 하나가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단어입니다.

사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질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21세기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세 단어를 소개하면서 1) 영성 2)치유 3)가정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문명과 자본주의, 이성주의 등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떨어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경험하게 되면서 영성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글을 쓰면서 어떤 글을 보니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주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영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란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성”이란 단어를 기독교인으로써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일반 종교에서나 사용하는 단어로서 동양의 신비 종교나 자기초월, 뉴에이지(New-Age) 등의 영향을 받은 단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영성운동을 하는 여러 리더들이 모두 그런 선상에 있는 사람들로 오해를 받아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성”(靈性, spirituality)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신령스러운 풍성이나 질”이라고 정의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풀어서 정의하면 ‘어떤 종교의 가르침이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단어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브래들리 한센라”라는 학자는 “영성이란 인간의 삶의 본질과 목적에 관한 확신에 따라서 사는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의 삶의 스타일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물론 “영성”이란 모든 종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영성”이란 의미는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라는 중요한 질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이점을 찾으면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하나님과 그의 바른 관계와 교제”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자기 초월적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불교에서의 영성은 “불경”에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슬람도 알라로부터 받은 “코란”이라는 율법대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지 알라와의 교제에 대한 부분을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바른 관계와 교제로 생겨지고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자신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체험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분과 교제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영성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성을 자신의 완성됨으로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바라는 지금까지의 영성에 대한 오해와 시도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진유철 칼럼

참전국 콜롬비아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950년 6월 25일 주일새벽,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신 하나님은 UN을 통해 기적 같은 군대 파병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178만9천명의 군인을 파병한 미국을 비롯하여 총 16개국에 참전하였는데, 중남미에서는 유일하게 5,062명의 군인을 파병한 나라

가 콜롬비아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처음 참전한 콜롬비아 부대는 미국의 보병사단에 배속되어 1951년부터 54년까지 활동하며 131명이 전사했고 44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9명이 실종되고 28명이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 2명이 콜롬비아의 국방장관, 여러 명이 참모총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전에 당시 대위로 참전한 발렌시아 장군은 콜롬비아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 손꼽히는데, 한국전 참전 역사는 콜롬비아 군의 상징이며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콜롬비아를 처음 방문하여 리오아차에서의 현지인 세미나와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4일 동안의 세미나와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마음 깊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리오아차 교회

협의회가 행사를 주관했는데,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섬김이 높아졌습니다. 각각 다른 교회에서 세미나와 집회가 열렸는데도 매일 몇 백 명씩 교회당을 가득채운 목회자와 리더들과 성도들의 반응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단기선교 팀의 잘 훈련된 섬김과 교회 중보 기도의 영향이 크지만, 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목요일 아침 리오아차 순복음교회의 마지막 감사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직접 공항 라이드까지 해주어서 차량 대여가 어려운 리오아차에서의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목요일 낮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600마일 조금 넘게 떨어진 보고타로 가서 마지막 저녁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총회장을 할 때까지 콜롬비아에는 우리 총회 소속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사역하던 김주영 선교사님이 2016년 12월에

부르심을 따라 콜롬비아에 왔고,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 2018년 4월 18일에 보고타순복음교회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으로 몹시 어려운 때 저희 교회의 1차 단기선교 팀이 방문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개척 멤버와 같은 마우리시오 집사는 2차 선교 팀이 방문하여 리오아차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제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약 50명 정도의 성도가 출석하는 보고타순복음교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피의 혈맹 관계를 이룬 콜롬비아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온 24명의 '가든지'의 선교 팀과 '보내든지 돕든지'의 주님 사명으로 하나 된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동식 칼럼

비평가가 아니라 부흥을 위해 실제로 기도하고 뛰는 이가 필요한 시대



박 동 식 교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센터키주 Asbury(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부흥 사건이 교회와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말이 많았다. 감정만 고조시키는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바람직한 현상인지에 대해 말을 보탠다. 그러나 일어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야 한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신비 체험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셨다.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초막 셋을 짓고 살자 한다. 이 체험 자체를 부정하면 곤란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 변화산 사건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오직 예수였다(마 17:8).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변화산 사건도 산 밑에서 일상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산 위의 신비든, 산 밑의 일상이든 주님만 나타나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주여"라고 터져 나올 때가 있다.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찾는 탄식이다. 주님을 찾는 것만도 은혜다. 이 압울한 시대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기도하자. 에즈베리 부흥 사건을 통해서도 남은 것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여야 한다. 그들이 체험한 부흥 사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체험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면 되지 않은가. 그 체험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되지 않은가.

다시금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외쳐야 할 때다. 부흥 한 번 일으키지 못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곳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보태는 것은 분명 바리새적 태도일 것이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 사건에 대해 관망자적 자세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해설자나 비평가가 아니라 그 부흥에 뛰어드는 헌신자가 필요하다.

차범근 감독이 축구 국가 대표 감독이었을 때, 경기 중 한국 선수가 골을 넣으면 앉아서 기도하셨다. 그것을 보고 당시 도올 김용옥이 비판 한 적이 있었다. 한 국가의 축구 감독이라면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였던 것 같다. 그때 필자는 사역하던 중등부 예배에서 "머리는 있되 가슴이 없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다. 지금 일어나는 부흥 사건에 대해 비판만 한다면, 그는 진정 머리는 있되, 부흥의 가슴이 없는 자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일어나는가? 기도하려 모이자고 해서 모이는가?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꿇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부흥을 노래하자.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골턴은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최초로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한다. 기도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도록 한 집단, 기도를 받지 않았고 그 사실을 모르도록 한 집단으로 나눠서 실험했다. 결론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기도가 그런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 "체험"을 한 이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않은가.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지 않은가. 카페든 어디서든 홀로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된다. 그가 누구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은혜를 맛본 경험 이 있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두 손을 모으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교회 아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있겠다'(마 18:20)는 말씀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기도하는 이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울컥하고, 그래서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함께 잠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경건의 힘 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스며든다. 오늘도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이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만, 그렇게 기도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은 그곳에 특별히 임재하실 것이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맡겨 드리는 포즈 같다. 자신의 두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드리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포즈 같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습관을 따라" 기도했고 "그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다. 늘 기도하던 곳에서 기도하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눅 22:39-41).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 하셨다. 특정한 날만

이 아니라 늘 하셨다. 천사가 나타나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 후 제자들에게 가 보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신다(눅 22:42-46).

제자들을 향한 권면이지만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기도 하다. 하나님께 구하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기에 간구하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 현상은, 펜데믹을 거치면서 지친이들에게, 특히나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다시금 부흥을 소망하며 살라는 신호라 할 수 있다. 그 신호가 단순히 얼마 못 가 꺼지는 촛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변해나간 사건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안경에 무엇이 묻었는데 눈을 아무리 비벼봤자 잘 보이지 않는다. 눈에 무엇이 묻었는데 안경을 아무리 잘 닦아 봤자 소용없다. 서로 한 몸처럼 도우며 지내야 한다. 성령 부흥운동과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눈과 안경처럼 함께 가야 한다. QT 아무리 많이 해도 삶 가운데 적용점이 없다면 바른 말씀 목상이 아니듯, 부흥 체험도 교회와 일상, 즉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령 부흥 운동 흐름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은 이상 비판할 이유가 없다. 절망 가운데 불붙은 부흥의 불길에 우리 가운데도 옮겨붙기를 간절히 간구하자. 그리고 이제는 부흥을 위해 존재를 걸고 두 발로 뛰자.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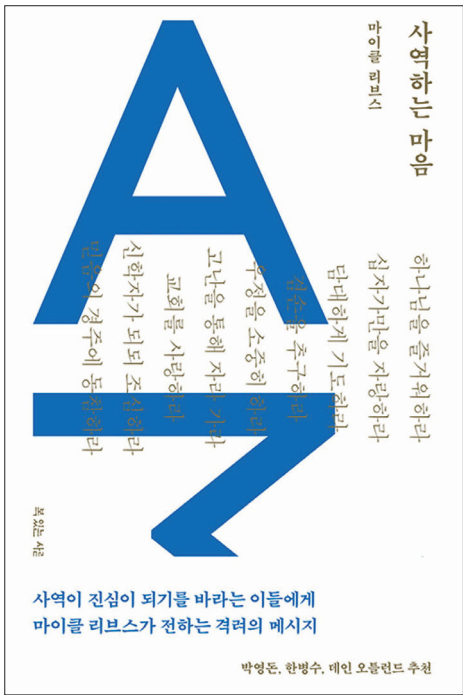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사역자가 지켜야 할 사역하는 마음

사역자라면 가져야 할 9가지 마음가짐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축복하기 위한 메시지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운유하고 겸손하니〉의 저자 데인 오틀런드는 이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받는 공적인 신학 훈련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 데 이보다 더 알맞은 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책은 사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미래의 사역자, 사역하는 마음을 가꿔야 할 현재의 사역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원서 제목은 'Authentic Ministry: Serving from the Heart'로, 번역하면 '순전한 사역: 마음으로부터 섬기다' 정도가 될 것이다.

저자 리브스는 이 책에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빛기 위해 반드시 훈련해야 할 아홉 가지 마음가짐을 제시했다: ①하나님을 즐거워하라 ②심자가만을 자랑하라 ③담대하게 기도하라 ④겸손을 추구하라 ⑤우정을 소중히 하라 ⑥고난을 통해 자라 가라 ⑦교회를 사랑하라 ⑧신학자가 되되 조심하라 ⑨민임의 경주에 동참하라 등이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는 리브스의 권면들은 그의 설명을 진지하게 청종할 때 정말 귀한 교훈이 된다. 그는 뻔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는다. 아주 예리하게 독자의 양심을 파고들며 순전한 사역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게 한다. 그리고 좁은 시야로 사역의 일에 얽매이고 파문될 이들에게 진짜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사역의 목적을 일깨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언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에서 저자는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싫증을 낸다. 이는 그분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파악했으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역시 누릴 만큼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적인 권태에 빠진다”고 자신을 포함하여 사역자가 자주 빠지는 문제를 고발한다(18쪽).

그리고 나서 바로 그는 “하지만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만조케 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권태는 그저 무지의 소산일 뿐이다”라고 분명한 영적 진리를 제시한다(18쪽).

마이크 리브스가 이 책을 통해 사역자에게 전달한 강력한 권면은 사실 사역자가 애써 가르치고 부르짖는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고 돌보고 치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것을 가르친다.

자기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말한다.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항상 겸손하라고 당부한다. 교회와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고난과 믿음의 경주를 통해 믿음과 신앙이 자랄 것을 요구한다. 항상 배우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은 쓸데없다고 경고한다. 바로 이런 교훈과 당부가 사역자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말하는 것이다.



©픽사베이

오는 5월이면 신학교 훈련을 마치고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된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10년이라는 사역하는 마음을 만들어간 시간을 돌아보면, 마이크 리브스의 당부는 하나같이 귀하고 중요하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그만큼 사역은 철저히 자신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이자 궁극적인 사역자이신 하나님의 힘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누구보다 더 필요하다. 〈사역하는 마음〉을 통해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위 목자인 사역자들의 마음을 돌보시기를 구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시기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기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신 본을 따르게 하시고, 운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우정을 귀히 여기고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며, 주가 완주하신 믿음의 경주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걸어가게 하시기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사역하는 마음
마이크 리브스 | 송동민 역
복있는사람 | 168쪽

진정한 사역과 섬김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라.”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기쁨에 찬 연합에서 진정한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다

사역자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일 것이다.

마이크 리브스는 이 본문에서 많은 사역자가 놓칠 수 있는 당부에 주목하는데, 바로 “여러분은 자신과 온 양떼를 잘 살피라”에서 ‘자신을 잘 살피라’는 첫 번째 권면이다.

20년 이상 선교 사역에 힘쓴 네팔 선교사가 선교사의 자기 돌봄(self-care)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 적이 있다. 맡겨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정신과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어 우울증이나 자만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영국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자 신학 교수, 런던 랭엄 플레이스 올 소울스 교회 목회자 마이크 리브스는 이 책의 내용을 신학교 학생들에게 강연한 적이 있다. 그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시들지 않도록, 기쁨과 활력을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로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8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EPHESIANS 5:8

2023. 4. 1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 주정부 허가: MTR-190586
samsungmoving@gmail.com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나는 신이다> (1)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그리고 <나는 신이다>

탈종교 편승 넷플릭스 교회 편취
사이비 이단과 교회 하나로 묶어
드라마나 영화로 우회적 편취 후
직설적·노골적 신앙 가치 부정해

◆사이비와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파에 대한 반감과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반응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기독교 계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의 악랄한 성폭력, 노동착취,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네 개 집단 교주들과 그들에게 현혹된 이들의 서글프고도 처참한 사연들이 여덟 개 에피소드 내내 이어진다.

이 다큐멘터리는 원래 'PD수첩'을 통해 여러 차례 이단, 사이비 종파들에 대해 폭로한 적 있는 MBC에서 기획, 제작하였고, 넷플릭스가 투자와 방영을 맡았다. 'PD수첩'은 이미 1999년에 만민중앙교회의 목회자 신격화 행태와 사기행각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바 있고,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1999년 JMS 교주 정명석의 조직적인 신도 성폭행 및 성착취 행각에 대해 폭로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년이 넘게 지난 2023년에 이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1999년과 2023년 현재는 종교, 특히 기독교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

1990년대는 한국교회 성장세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다. 규모로 따졌을 때 전 세계 수위에 드는 메가처치(주일예배에 평균 10,000명 이상 신자들이 참석하는 대형교회)가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 등장했고, 대학가 역시 1980년대 학생운동의 열풍이 지나간 뒤 청년 복음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JMS나 만민중앙교회처럼 특정인을 신격화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결함을 가진 종교집단들에 대한 폭로성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전반적으로 정

통 교리,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과 이단·사이비 교회들을 분리해서 보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2023년 현재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와 부조리에 실망한 이들 상당수가 교회를 떠났고, 방송가와 학계에는 종교다원주의를 넘어 아예 탈종교화를 부추기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대한 세간의 반응은 이단·사이비 종파를 넘어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반응은 정확하게 넷플릭스 측이 의도한 대로라고 볼 수 있다. 이단·사이비 종파와 일반 기독교회를 하나로 묶어 편취하는 행태는 지난 몇 년간 넷플릭스가 공개한 여러 작품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해외 편으로는 <메시아>(2020)와 <어둠 속의 미사>(2021)가 있고, 국내에서는 <지옥>(2021), <글리치>(2022), <수리남>(2022)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는 교주들이 등장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여기에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그 이후 단계인 탈종교화를 추구하는 넷플릭스의 제작 철학이 진득하게 반영되어 있다. 넷플릭스 작품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비롯한 종교적 믿음은 인류의 과학적 진보와 사상적 계몽과 함께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그려진다.

넷플릭스의 이런 탈종교화 성향은 치밀한 빌드업 과정을 거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드라마 서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편취한 후 시청자들이 이 메시지를 별 부담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는 신이다>처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신앙의 가치를 부정하는 식이다. 이런 추세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로 본다면 <나는 신이다> 시즌 2나 이와 유사한 양식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비와 넷플릭스: 탈종교화를 추구하며 기독교 신앙을 편취하는 미디어 기업 넷플릭스

물론 <나는 신이다> 같은 다큐멘터리가 갖는 순기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 오대양과 아가동산은 해체되어 사라졌지만, JMS나 만민중앙교회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교세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게다가 두 집단 모두 설립 연차가 40년이 넘어가고 한 때는 대단한 규모로 교세 확장을 달성한 적이 있다. 덕분에 각 집단의 추종자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를 잡았고, 이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나 연예인들이 주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신이다>는 두 집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의 방영 의도가 단지 이런 경고 기능에만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넷플릭스는 꾸준히 기독교 계열 이단·사이비 종파들을 드라마에 등장시키면서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한 회화화를 그치지 않았고,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에서는 아예 이기적이고 악독한 가짜 기독교인들을 등장시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나는 신이다> 에피소드 전체는 오로지 기독교 계열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확연한 편파성이 드러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단·사이비 집단이 비단 개신교회로부터만 파생된 것은 아니다. 여타 종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 교주들이 여럿 등장했다.

개신교 계열 이단·사이비 종파들이 규모나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타 종파의 이

단·사이비 지도자들 역시 그 위험성의 규모가 작을 뿐, 그들의 영적·도덕적 타락상 역시 질적으로 기독교 계열 사이비 지도자들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만약 진정으로 이단·사이비 지도자들에 의한 선량한 이들의 피해를 막고자 한다면, 기독교 관련 이단 종파만이 아니라 다른 종파 계열 사이비 집단들에 대해서도 조명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거기까지 다큐멘터리 내용을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편취가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된 목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확연한 반기독교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이 회사가 미국에 거점을 둔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일찍 탈종교화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자리잡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오랜 세월 그들의 문화를 지배하면서 교회에 부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문화적 자유와 상상력을 억압해 왔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과거 한국 문명을 정체시킨 주범이었던 유교 사상에 대해 깊은 회의감과 경멸심을 품는 것과 비슷하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런 현대적 반감은 특히 진보 계열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목격되는데, 이들이 바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 삼은 이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의 주 시청자로 자리잡은 이들이다.

즉 넷플릭스는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이들을 회사 고객으로 끌어들었다. 그리고 이익 규모 확장을 위해 회사의 주요 고객들이 가진 이 반감을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주입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나는 신이다>의 제작과 방영은 바로 이런 정서적 배경과 경영상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나는 신이다>에 출연한 JMS의 성폭행 범죄 피해자 메이플 씨.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 청빙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목사: 남성수/CRC 교단)에서는 함께 동역할 유초등부(Elementary) 사역자(Part-time)를 청빙합니다.

■ 지원 자격

- 1. 유경험자

■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자기 소개서 (신앙간증 / 소명 / 목회경험 / 가족소개)
- 3. 목회자 추천서 1부

■ 사 례

- 1. 사례는 면접 시 안내해드립니다.

■ 접수 마감 및 문의

- 1. 2023년 4월 30일까지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2. 문의 전화: 714-893-1652(교회 사무실)

KCOC, member of CRC denomination, is located in Orange County. We are currently looking for a part-time Elementary Pastor

■ Qualification

- 1. Experienced pastor

■ Please submit

- 1. Resume
- 2. Self-introduction
- 3. Pastoral recommendation letter

■ Compensation

- 1. To be determined after the interview

■ Application due date and contact information

- 1. Please submit all documents by April 30, 2023 via email to KCOC (kcocoffice2@gmail.com)
- 2. Contact phone number: 714-893-1652(church office)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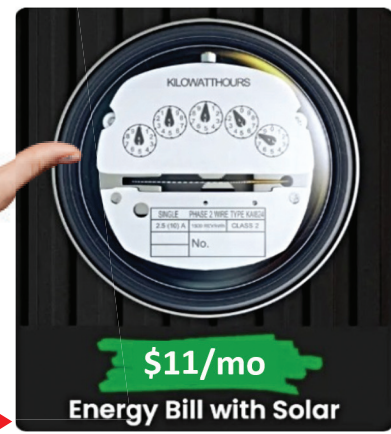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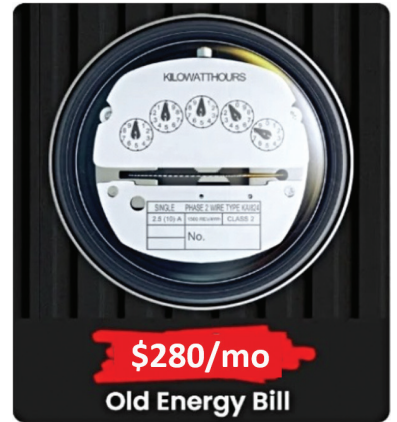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특혜 / 30% Tax Credit

**2023년
대박**

전기세가 11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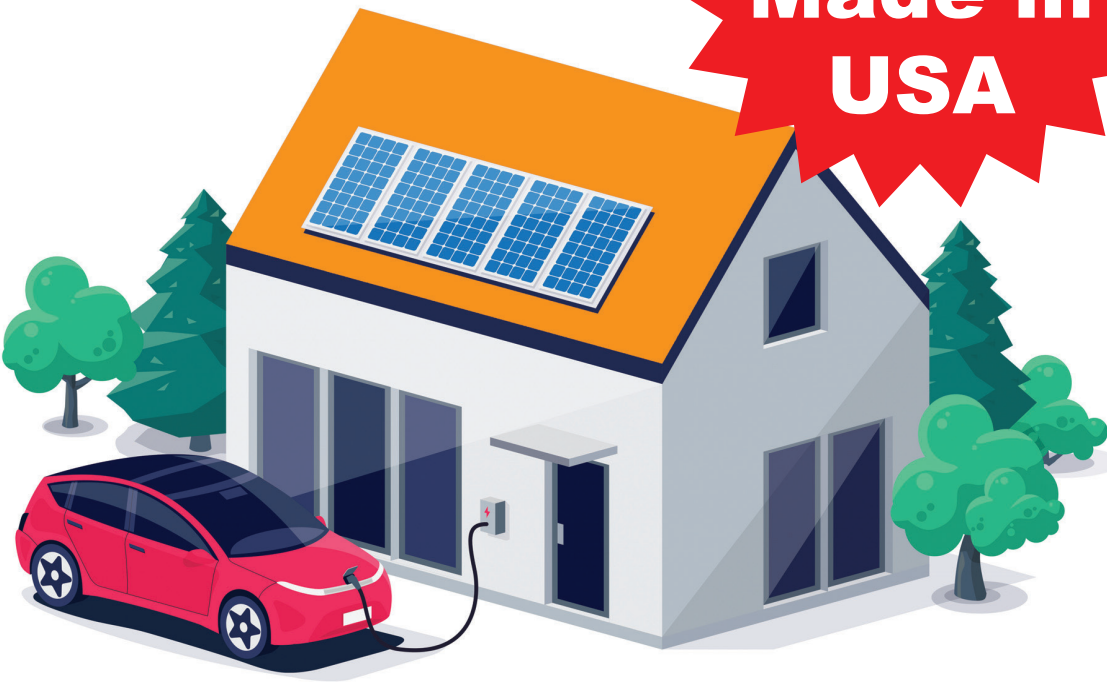
**100%
Made in
US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년 뒤 부터 Payment
- ✓ 전기료 70~80% 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 ✓ **EV Car Outlet Free**



***** 돈 한푼 안 들이고 전기세 70~80% 절감 *****

다른 솔라 업체에 문의 후 BTS 솔라에 연락해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십시오!!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70%~80% 절감효과**
- ✓ 별도의 설치비 없고 **Zero Down**
- ✓ 1st Payment은 설치 후 바로 **1년 후 부터**
- ✓ 안정적인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패널** 사용
- ✓ 모든 제품군 (패널, 인버터, 레일, 케이블) **25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1~2달 안에 설치** 가능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BTSSolar

*소개 해 주시면 500불을 드립니다

213-500-8000
714-702-0151

CELLS PARTNE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십시오.

1. 문의 전 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 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